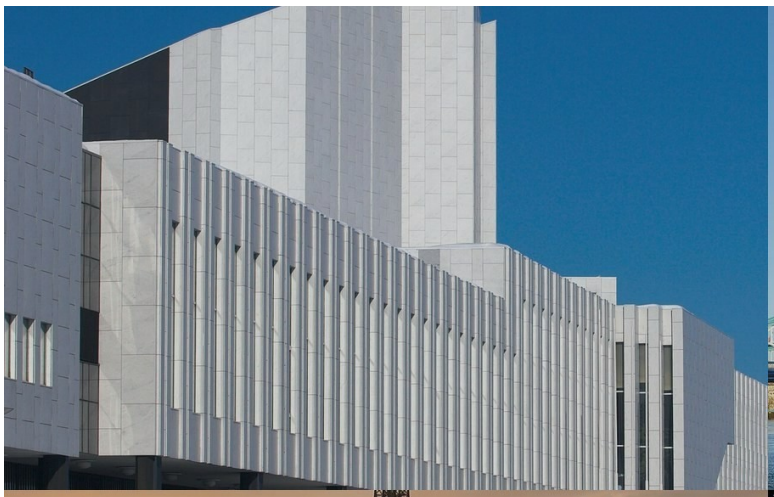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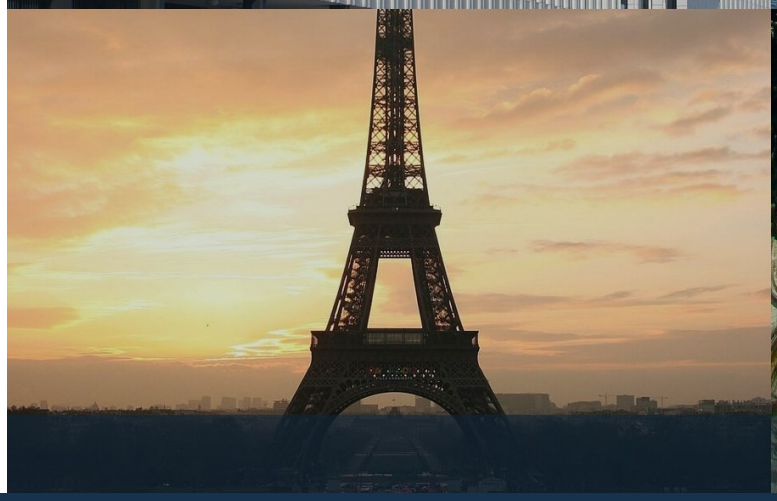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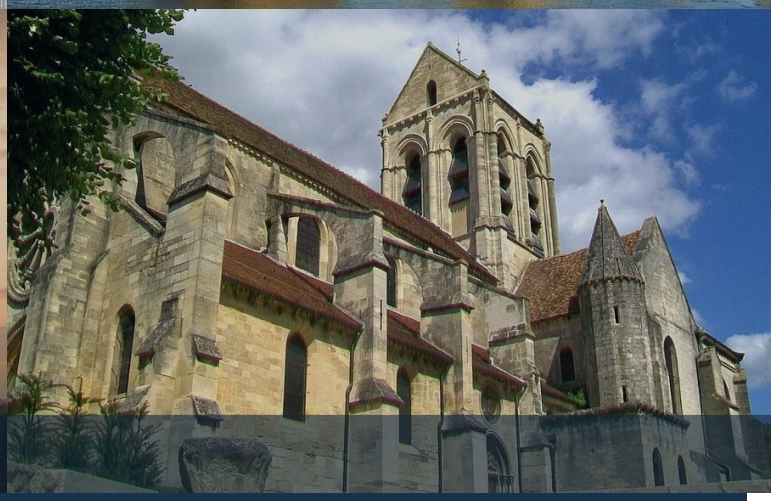

헬싱키·런던·파리

역사·문화·신앙 탐방 가이드북

18 일	3 개국	65 곳
2026. 7. 27 - 8. 13	핀란드 · 영국 · 프랑스	건축 · 예술 · 역사 · 신앙

2026 교회학교 유럽 탐방

나의 이름 _____

사진과 충분한 설명으로 만나는 현장 안내서

도시의 건축과 예술, 전쟁의 기억과 신앙의 흔적을 차분히 따라갑니다.

HELSINKI · LONDON · CAMBRIDGE · BEDFORD · PARIS · AUVERS-SUR-OISE

이 책을 사용하는 법

사진과 설명을 먼저 읽고, 현장에서는 인솔자의 안내와 각 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01 일정과 모임

항상 정해진 짝과 함께 움직이고, 다음 모임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여권·표·휴대전화·비상 연락처는 이동 전마다 점검합니다.

02 성당과 묘지

관광지이기 전에 예배와 추모가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걷고, 기도 중인 사람과 장례·예배 일정, 촬영 금지 구역을 먼저 존중합니다.

03 사진 촬영

사람을 가까이 촬영할 때는 허락을 구하고, 박물관과 교회에서는 플래시·삼각대·상업 촬영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진보다 직접 보는 시간을 충분히 둡니다.

04 박물관 관람

모든 전시를 급하게 훑기보다 중요한 작품과 자료를 천천히 봅니다. 전시물에 손대지 않고 통로를 막지 않으며, 그룹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05 전쟁과 재난 전시

무기보다 편지·사진·민간인의 삶과 회복 과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충격적인 자료가 힘들게 느껴질 때에는 바로 인솔자에게 알리고 잠시 쉬어도 됩니다.

06 사실과 전승

버니언과 반 고흐 관련 장소에는 확인된 역사 사실, 지역 전승, 문학적 연상이 함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셋을 가능한 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현장 정보 안내 운영시간·예약·보안·예배 일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입장과 이동은 출발 직전 공식 안내와 인솔자의 당일 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날짜별 도시와 방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날짜	도시	하루의 주제	주요 방문지
7/27 월	헬싱키	건축·신앙·전쟁의 기억	핀란디아 홀 · 겨울전쟁 국가기념비 · 원로원 광장 · 우스펜스키 대성당 · 기뢰 제거대원 기념비
7/28 화	런던	왕실·공원·공공미술	빅토리아 기념비 · 버킹엄 궁전 · 세인트 제임스 파크 · 트라팔가 광장 · 내셔널 갤러리
7/29 수	런던	자유·도시공학·상징	웰링턴 아치 · 하이드 파크 · 존 스튜어트 밀 동상 · 타워 브리지
7/30 목	런던	전쟁을 배우고 평화를 생각하기	제국전쟁박물관 · 런던 한국전쟁 기념비 · 처칠 워 룸
7/31 금	런던	이야기와 도시 풍경	프림로즈 힐 · 셜록 홈즈 박물관 · 리젠트 파크
8/1 토	케임브리지	대학과 과학적 호기심	케임브리지 대학교 · 뉴턴의 사과나무
8/2 일	런던	예배 공간과 회복	세인트 폴 대성당
8/3 월	런던	의회·신앙·시간	웨스트민스터 궁전 · 웨스트민스터 사원 · 빅벤
8/4 화	런던	세계 유산과 소유의 질문	대영박물관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 계속

날짜별 도시와 방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날짜	도시	하루의 주제	주요 방문지
8/5 수	런던	예술·과학·자연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 런던 자연사박물관
8/6 목	베드포드·엘스토우	존 버니언과 마음의 순례	존 버니언 동상 · 버니언 미팅 교회와 박물관 · 옛 베드포드 감옥 터 · 세인트 존 교회와 옛 사제관 · 엘스토우 수도원 교회 · 엘스토우 마을광장과 무트 홀 · 버니언 출생지 기념 지점 · 엘스토우 브룩과 '절망의 늪' 연상 풍경
8/7 금	런던→파리	도시를 잇는 철도	세인트 판크라스 국제역·유로스타
8/8 토	파리·오베르쉬르우아즈	시장·혁명·문학·반 고흐	알리그르 시장·벼룩시장 · 바스티유 광장 · 빅토르 위고의 집 · 오베르쉬르우아즈와 라부 여인숙 · 오베르 시청과 반 고흐의 그림 · 오베르 교회 · 빈센트와 테오의 묘 · 가셰 박사의 집 · 도비니의 정원 · 오베르의 밀밭과 마지막 풍경들
8/9 일	파리	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	오르세 미술관
8/10 월	파리	빛·신앙·시민의 기억	노트르담 대성당 · 생트샤펠 · 튁상부르 공원 · 팡테옹
8/11 화	베르사유·파리	왕권과 근대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 · 트로카데로 광장 · 에펠탑
8/12 수	파리	권력·예술·혁명의 축	루브르 박물관 · 생제르맹 록세루아 교회 · 콩코드 광장
8/13 목	파리	예술가의 언덕과 근대 도시	몽마르트르 언덕 · 오스만 대로 · 개선문 · 샹젤리제 거리 · 쁘띠 팔레

헬싱키

건축·신앙·전쟁의 기억 | Helsinki, Finland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핀란디아 홀

Finlandia-talo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 알토가 설계한 공연·회의 시설입니다. 흰 대리석과 불규칙한 창, 서로 다른 높이의 덩어리가 호숫가 풍경과 어울리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건물을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빛·소리·사람의 움직임을 담는 하나의 풍경으로 보려 했던 북유럽 현대건축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알토는 건물의 외관만이 아니라 내부의 조명, 가구, 손잡이와 음향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려 했습니다. 낮게 뻗은 수평 부분과 높이 솟은 공연장 덩어리, 흰 외벽의 세로 창은 물가의 빛과 날씨에 따라 계속 다른 표정을 만들어 냅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겨울전쟁 국가기념비

Talvisodan kansallinen muistomerkki · Valon tuoja

1939~1940 년 겨울전쟁을 기억하는 국가기념비로, 작품 이름은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멍이 난 강철 형상과 내부의 역사 사진은 전쟁 속에서 상처 입은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승리만을 자랑하기보다 희생을 기억하고, 전쟁 뒤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지 생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강철 표면의 수많은 구멍은 총탄 자국이나 상처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둠 속으로 빛을 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구멍 사이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과 역사 사진이 겹치면서 전쟁이 과거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의 개인과 가족에게 이어지는 기억임을 드러냅니다.

헬싱키 · 계속

건축·신앙·전쟁의 기억 | Helsinki, Finland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원로원 광장

Senaatintori · Senate Square

19 세기 초 건축가 C. L. 엥겔이 중심이 되어 조성한 신고전주의 광장입니다. 헬싱키 대성당, 정부 청사, 대학 건물이 넓은 빈 공간을 둘러싸며 국가·신앙·교육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축제와 시민 행사가 열리는 이곳에서 광장이 단순한 빈터가 아니라 도시 공동체의 '거실'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광장 중앙의 알렉산드르 2 세 동상은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의 자치 대공국이었던 시대도 함께 보여 줍니다. 네 방향에서 반복되는 기둥과 창, 넓은 계단과 빈 공간은 국가의 권위와 시민의 일상이 한 장면에 겹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우스펜스키 대성당

Uspenskin katedraali

1868 년에 완성된 동방정교회 대성당으로, 붉은 벽돌과 금빛 양파 모양 돔이 헬싱키의 서쪽 교회 건축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내부에는 성상화가 벽을 가득 채우며, 예배에서 이미지와 향, 노래가 함께 사용됩니다. 관광지이기 전에 지금도 예배가 이어지는 공간이므로 조용히 걷고 촬영 규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부의 성상벽은 회중이 서 있는 공간과 제단 영역을 나누면서도, 성인과 성경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이어 줍니다. 붉은 벽돌과 금빛 돔의 강한 외관, 촛불·향·성가가 만드는 내부 분위기는 동방정교회 예배가 여러 감각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기뢰 제거대원 기념비

Miinanraivaajien muistomerkki · Minesweepers' Memorial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핀란드만에는 수많은 기뢰가 남아 있어 항구와 항로를 위협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위험한 바다에서 기뢰를 제거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대원들을 기억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뒤에도 사람들의 안전을 회복하는 일은 오래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작은 평화 교육의 장소입니다. 전후의 기뢰 제거는 항구를 다시 열고 식량과 물자를 운반하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었습니다. 항구 풍경 속 닻과 기뢰를 닮은 금속 형상은 평화가 선언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한 오랜 복구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런던

왕실·공원·공공미술 | London,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빅토리아 기념비

Victoria Memorial

버킹엄 궁전 앞의 거대한 기념물로, 조각가 토머스 브록이 설계해 1911 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중앙의 빅토리아 여왕과 주변의 승리·정의·진실을 상징하는 인물들은 제국 시대 영국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여 줍니다. 웅장함에 감탄하는 동시에, 기념물이 누구의 역사를 크게 말하고 누구의 목소리는 작게 만드는지도 물음을 던집니다. 기념비와 버킹엄 궁전, 더 몰은 하나의 긴 의전 축을 이루어 왕실 행렬을 극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금빛 승리상과 흰 대리석의 우의적 인물들은 당시 영국이 왕권과 제국을 정의·진실·번영의 이미지로 설명하려 했던 방식을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버킹엄 궁전

Buckingham Palace

영국 군주의 런던 공식 거처이자 국가 행사가 열리는 업무 공간입니다. 오늘의 정면은 여러 시대의 증축과 개조를 거쳐 완성되었고, 중앙 발코니는 왕실 행사의 상징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건물 안의 생활 공간과 밖에서 보이는 국가 상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며, 국기와 근위대의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궁전은 한 번에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주택과 궁전을 여러 차례 확장하며 만들어진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지붕 위 국기, 중앙 발코니, 정문의 문장과 근위대의 움직임은 사적인 거주 공간을 국가 의례의 무대로 바꾸는 상징 장치입니다.

런던 · 계속

왕실·공원·공공미술 | London,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세인트 제임스 파크

St James's Park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왕립공원으로, 궁전과 정부청사 사이에 호수와 잔디, 나무가 이어집니다. 17 세기부터 이곳에 살아온 펠리컨은 공원의 특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도시 한가운데 자연을 남겨 두는 일이 사람의 휴식뿐 아니라 새와 곤충의 삶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수와 다리, 나무의 배치는 버킹엄 궁전과 화이트홀 쪽 풍경을 자연스러운 그림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람의 산책과 휴식, 새의 먹이 활동, 수변 식물의 생장이 같은 공간에서 이어지도록 관리되는 모습은 도심 공원이 생태와 도시생활을 함께 품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트라팔가 광장

Trafalgar Square

1805 년 트라팔가 해전을 기념하는 넬슨 기둥이 중심에 서 있는 런던의 대표 광장입니다. 국가 행사는 물론 시위·축제·추모가 함께 열려, 권력의 상징과 시민의 목소리가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받침대에 시대마다 다른 현대미술 작품이 놓이는 까닭도 공공장소가 계속 새 의미를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광장 주변에는 내셔널 갤러리와 교회, 외교·문화 건물이 모여 있어 전쟁기념 공간이 일상적인 시민 중심지로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넬슨 기둥과 사자상, 네 번째 받침대의 현대미술, 집회와 거리공연이 동시에 보이는 장면은 공공 공간의 의미가 계속 새로 쓰인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런던 · 계속

왕실·공원·공공미술 | London,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내셔널 갤러리

The National Gallery

1824 년에 시작된 미술관으로, 중세 말부터 20 세기 초까지의 서유럽 회화를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작품을 급하게 통과하기보다 한 그림 앞에 오래 서서 인물의 시선, 빛의 방향, 화가가 선택한 색을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작품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무엇이 보이는가'를 말해 보는 느린 관람을 해 보세요. 전시실은 대체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므로 원근법, 빛, 인물 표현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하기 좋습니다. 한 작품 안에서 가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인물의 시선과 손짓을 따라가면 화가가 관람자의 눈을 움직이도록 구성한 방식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런던

자유·도시공학·상징 | London,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웰링턴 아치

Wellington Arch

19 세기 런던의 서쪽 관문으로 세워진 개선문이며,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뒤 정상에는 거대한 사두마차 조각이 놓였습니다. 전쟁 영웅을 기리는 기념물이면서 동시에 왕실 행렬과 도시 교통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건축물이 한 자리에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고 새 역할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도시 교통이 커지면서 아치가 원래 자리에서 옮겨졌다는 사실은 기념물도 도시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아치 아래의 사람과 차량, 정상의 사두마차 조각을 함께 보면 문 하나가 거리의 규모와 권위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하이드 파크

Hyde Park

헨리 8 세 시대 왕실 사냥터에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바뀐 런던의 큰 공원입니다. 서펜타인 호수, 넓은 잔디, 스포츠 공간과 함께 '스피커스 코너'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자유로운 표현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공원은 켄싱턴 가든과 이어져 런던 서쪽에 거대한 녹지축을 만들며, 산책·승마·수영·집회가 서로 다른 구역에서 공존합니다. 서펜타인 호수와 넓은 잔디, 스피커스 코너는 자연을 보존하는 일과 시민에게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 함께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런던 · 계속

자유·도시공학·상징 | London,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존 스튜어트 밀 동상

Statue of John Stuart Mill · Victoria Embankment Gardens

자유와 평등, 여성의 권리를 논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동상은 하이드 파크가 아니라 템스강가의 빅토리아 임뱅크먼트 가든에 있으므로 이동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밀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의 온라인 말하기에도 적용해 보세요. 밀의 저술은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에는 사회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을 든 자세와 차분한 표정은 왕이나 장군이 아닌 사상가를 공공장소에서 기억하는 방식이며, 동상이 하이드 파크가 아니라 템스강변 정원에 있다는 위치 정보도 동선 계획에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타워 브리지

Tower Bridge

1886~1894 년에 건설된 다리로, 큰 배가 지나갈 때 중앙의 두 도개교가 위로 열립니다. 중세 성처럼 보이는 탑 안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철골과 기계장치가 숨어 있어 '옛 모습'과 '새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아름다운 외관뿐 아니라 강의 교통, 도로의 교통, 보행자의 이동을 동시에 해결한 공학 설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개교의 양쪽 날개는 거대한 균형추와 연결되어 적은 힘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초기에는 증기기관이 만든 수압으로 움직였습니다. 석조 성곽처럼 꾸민 외피와 파란 철골, 높은 보행로를 함께 보면 항구 도시의 실용적 요구를 역사적인 경관과 조화시키려 한 설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런던

전쟁을 배우고 평화를 생각하기 | London,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제국전쟁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London

제 1 차 세계대전 중 설립되어 근현대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남긴 경험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무기와 군복만 보지 말고 편지, 가족사진, 피난과 생존의 기록을 통해 전쟁이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친구와 함께 움직이고 불편할 때는 인솔자에게 말합니다. 전시에서는 선전 포스터와 군수품뿐 아니라 어린이의 피난 가방, 일기, 녹음된 증언처럼 평범한 생활의 흔적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쟁을 영웅담 하나가 아니라 선택·상실·생존이 얽힌 복합적인 경험으로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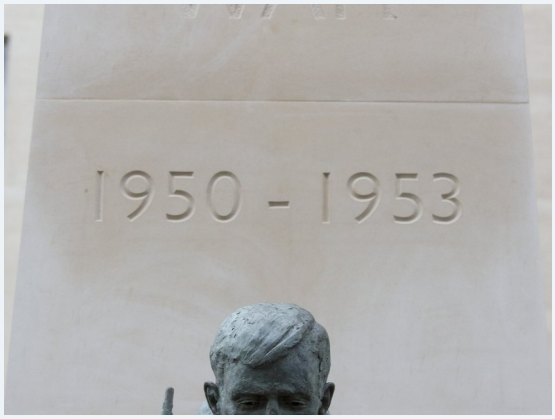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런던 한국전쟁 기념비

Korean War Memorial · Victoria Embankment Gardens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 군인과 전쟁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2014 년에 세워졌습니다. 병사 조각과 한반도 모양의 석재는 영국과 한국의 연결을 보여 주며, 전쟁의 기억이 한 나라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국적과 숫자 뒤에 각각의 이름, 가족, 일상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며 묵념해 보세요. 병사의 고개 숙인 자세와 거친 지형을 닮은 받침, 한반도 윤곽은 먼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과 영국인의 참전을 한 장면에 연결합니다. 템스강변의 정부기관 가까이에 자리한 이 기념비는 한국전쟁의 기억이 한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참전국과 가족들이 함께 간직하는 국제적 기억임을 나타냅니다.

런던 · 계속

전쟁을 배우고 평화를 생각하기 | London,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처칠 워 룸

Churchill War Rooms

제 2 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와 군 지휘부가 공습을 피해 사용한 지하 작전실입니다. 지도실, 회의실, 좁은 침실이 당시 모습에 가깝게 남아 있어 국가적 결정을 내리던 긴장과 일상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용기만 칭찬하기보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내린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지하 공간에는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지도 제작자, 전화 교환원, 비서와 군인들이 밤낮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지도 위의 핀, 전화기, 암호 자료와 좁은 통로는 빠르게 변하는 정보를 모으고 전달하는 일이 전쟁 지도부의 결정만큼 중요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런던

이야기와 도시 풍경 | London,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프림로즈 힐

Primrose Hill

리젠트 파크 북쪽의 낮은 언덕으로, 정상에서 런던 중심부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과 교회 돔, 나무와 주택이 층층이 겹쳐 보여 도시가 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된 조망선 덕분에 특정한 역사 건축물이 멀리서도 보이도록 도시 계획이 작동한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전망은 우연히 남은 것이 아니라 세인트 폴 대성당 같은 주요 건축물이 멀리서도 보이도록 조망선이 보호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돔과 첨탑, 현대식 고층 건물, 가까운 주택과 나무가 한 시야에 겹치면서 런던이 여러 시대의 층으로 이루어진 도시임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셜록 홈즈 박물관

The Sherlock Holmes Museum · 221B Baker Street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속 탐정 셜록 홈즈가 살았다고 설정된 221B 베이커 스트리트를 재현한 박물관입니다. 홈즈는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빅토리아 시대 방과 소품을 통해 소설의 세계를 실제 공간처럼 경험하게 합니다. '역사 자료'와 '문학적 재현'을 구분하면서도, 좋은 이야기가 장소를 얼마나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방과 소품은 실제 역사 인물의 유품이 아니라 소설의 문장과 시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무대 같은 재현입니다. 돋보기, 화학 도구, 편지와 벽난로 주변의 물건들은 홈즈의 관찰과 추리를 시각화하며, 허구의 주소가 실제 관광지와 도시 브랜드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리젠트 파크

The Regent's Park

19 세기 건축가 존 내시의 도시 계획 속에서 조성된 왕립공원입니다. 둥근 도로와 고전주의 테라스, 퀸 메리 정원, 동물원이 어우러져 자연처럼 보이는 풍경도 세심하게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식물의 이름과 색뿐 아니라 길의 곡선, 시야가 열리고 닫히는 순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공원의 안쪽 원형도로와 바깥 원형도로, 주변의 고전주의 테라스는 존 내시가 도시와 공원을 하나의 큰 구성으로 계획했음을 보여 줍니다. 직선 화단과 곡선 산책로, 잘 다듬은 장미정원과 자연스럽게 보이는 잔디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자연스러움도 세심한 설계의 결과일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과 과학적 호기심 | Cambridge,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케임브리지 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

1209 년에 시작된 대학으로, 하나의 캠퍼스가 아니라 여러 칼리지와 학과가 도시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중정, 식당, 예배당, 도서관은 학생이 공부뿐 아니라 생활과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유명 인물의 이름만 찾기보다, 오랜 전통 속에서도 질문하고 토론하며 지식을 고치는 대학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칼리지는 독립된 생활·교육 공동체로 운영되며, 강의와 연구는 대학의 학과와 연구기관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문을 지나 중정으로 들어갈 때 거리의 소음이 줄고 시야가 정돈되는 경험, 강변의 백스와 예배당·도서관이 이어지는 풍경은 공부와 공동생활을 공간으로 조직한 방식을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뉴턴의 사과나무

Newton's Apple Tree · Trinity College

트리니티 칼리지에 있는 나무는 뉴턴의 고향 울즈소프 매너 사과나무에서 접붙여 이어 온 후계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가 머리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확실한 사실이 아니지만,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왜 아래로만 떨어지는가'라고 질문했다는 전승은 중요합니다. 발견은 특별한 번개보다 평범한 현상을 끝까지 묻는 태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과 이야기는 복잡한 과학 발견을 한 장면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이지만, 만유인력 이론은 오랜 계산과 관찰, 다른 학자들과의 논쟁을 거쳐 발전했습니다. 원래 나무에서 접붙여 이어 온 후계 나무라는 점은 역사적 물건의 '진짜'가 하나의 몸체만이 아니라 기록과 계보를 통해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 줍니다.

런던

예배 공간과 회복 | London,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세인트 폴 대성당

St Paul's Cathedral

1666 년 런던 대화재 뒤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해 1710 년에 완성한 영국 성공회 대성당입니다. 거대한 돔은 도시의 상징이면서 예배·추모·국가 행사가 이어지는 공간을 덮습니다. 전쟁과 화재를 견딘 건축의 회복력에 주목하되, 관광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안내된 촬영·대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거대한 돔은 내부에서 보이는 장식용 돔, 하중을 받는 구조, 도시에서 보이는 외부 돔이 겹쳐진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닥의 십자형 평면과 반복되는 기둥, 돔 아래로 모이는 빛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중앙과 위쪽으로 이끌며, 전쟁 시기에도 살아남은 실루엣은 런던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런던

의회·신앙·시간 | Westminster, London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웨스트민스터 궁전

Palace of Westminster · Houses of Parliament

영국 의회가 열리는 건물로, 1834 년 큰 화재 뒤 고딕 리바이벌 양식으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중세처럼 보이는 외관 안에서 오늘의 법률과 정책이 토론되는 모습은 전통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의회는 완성된 답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듣고 수정하는 과정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찰스 배리의 전체 계획과 오거스터스 퓨진의 세부 장식이 결합되어, 겉모습은 중세적이지만 내부는 근대 의회 기능에 맞게 구성되었습니다. 템스강변의 긴 입면과 수많은 첨탑,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탑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역사적 연속성과 국가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웨스트민스터 사원

Westminster Abbey

1066 년 이후 영국 군주의 대관식이 이어져 온 왕실 특유교회이자, 왕과 정치가·과학자·작가가 기억되는 장소입니다. '시인의 코너'에는 문학가들의 묘와 기념물이 모여 있어 교회가 국가의 기억 저장소 역할도 했음을 보여 줍니다. 유명인의 이름을 찾는 것과 함께, 오랜 세월 이름 없이 예배하고 일한 사람들도 상상하게 합니다. 이곳은 주교좌가 있는 대성당이 아니라 군주에게 직접 속한 '왕실 특유교회'로, 예배와 국가 의례가 긴밀히 이어져 왔습니다. 수직으로 치솟는 고딕 구조, 대관식에 사용되는 바닥 장식, 바닥과 벽을 가득 채운 묘와 기념물은 한 교회가 국가의 기억 지도가 된 과정을 보여 줍니다.

런던 · 계속

의회·신앙·시간 | Westminster, London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빅벤

Big Ben · Elizabeth Tower

'빅벤'은 엄밀히 말해 탑 전체가 아니라 안에 있는 큰 종의 별명이며, 탑 이름은 엘리자베스 타워입니다. 네 방향의 큰 시계는 철도와 산업도시가 성장하던 시대에 정확한 공동 시간을 제공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움직이기 위해 시간 측정이 왜 중요한지, 스마트폰 이전의 도시를 상상하게 합니다. 시계 장치는 무거운 시계추와 정교한 탈진기를 이용해 거대한 바늘을 일정하게 움직이며, 작은 조정으로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개의 시계판과 큰 종, 15 분마다 울리는 작은 종들이 시각과 청각으로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하면서 산업도시의 약속과 이동을 조율했습니다.

런던

세계 유산과 소유의 질문 | London, United Kingdom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대영박물관

The British Museum

1753 년에 설립되어 1759 년 일반에 문을 연 세계적인 역사·문화 박물관입니다. 로제타석, 이집트 조각, 그리스 파르테논 조각 등은 인류의 창조성을 보여 주지만, 일부 유물은 제국주의·전쟁·불평등한 거래 속에서 이동해 반환 논의가 계속됩니다. 세 점만 골라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여기 왔으며, 누구의 목소리로 설명되는가'를 물음을 던집니다. 유리 지붕의 그레이트 코트와 원형 열람실은 오래된 박물관 건물에 새로운 공공 동선을 더한 공간입니다. 전시 라벨의 제작지·연대·수집 경로를 함께 읽으면 유물이 단지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라 이동과 소유, 제국과 학문의 역사를 품은 자료라는 점이 더 선명해집니다.

런던

예술·과학·자연 | South Kensington, London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Victoria and Albert Museum · V&A

1852 년에 시작된 장식예술·디자인 박물관으로, 의복·가구·도자기·금속·사진·무대예술 등 일상과 가까운 창작물을 다룹니다. '예술'은 액자 속 그림만이 아니라 컵의 손잡이, 옷의 재단, 의자의 구조에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아름다움, 편리함, 재료와 제작 노동을 함께 살피면 디자인의 여러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뿌리는 산업과 디자인 교육을 발전시키려 했던 19 세기 전시 문화에 있으며, 실제 물건과 복제품을 비교하며 제작 기술을 배우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재료를 다루는 솜씨, 사용하기 편한 구조, 장식의 의미를 함께 보면 디자인이 아름다움과 기능, 노동을 연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Imperial College London

1907 년에 설립된 과학·공학·의학 중심 대학으로, 박물관과 교육기관이 모인 사우스 켄싱턴의 '앨버토폴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퀸스 타워는 이전 교육기관의 흔적을 남기며 오래된 도시 계획과 현대 연구를 연결합니다. 과학이 단지 지식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캠퍼스 중앙의 퀸스 타워는 이전 교육기관의 흔적을 남기며, 주변의 현대 연구동과 강한 시대적 대비를 이룹니다. 박물관·공연장·대학이 가까이 모인 사우스 켄싱턴의 배치는 과학과 예술, 대중교육을 한 지역에서 서로 자극하도록 계획한 19 세기 도시 구상의 연속입니다.

런던 · 계속

예술·과학·자연 | South Kensington, London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런던 자연사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1881 년에 문을 연 로마네스크 양식의 박물관으로, 생물 다양성과 지구·우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대한 표본을 보관합니다. 중앙 홀의 고래 골격과 공룡 화석은 크기로 놀라게 하지만, 작은 곤충과 광물 표본도 생태계와 진화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분류표가 자연을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복잡성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게 합니다. 알프레드 워터하우스가 설계한 건물의 테라코타 벽에는 살아 있는 동물과 멸종한 생물의 모습이 장식처럼 새겨져 있어 건물 자체가 거대한 자연 도감처럼 보입니다. 큰 고래와 공룡뿐 아니라 작은 곤충·식물·광물 표본을 함께 보면 과학적 분류가 수많은 세부 증거 위에 세워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포드·엘스토우

존 버니언과 마음의 순례 | Bedford & Elstow, England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존 버니언 동상

John Bunyan Statue · St Peter's Green, Bedford

땜장이이자 설교자, 『천로역정』의 작가였던 존 버니언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평범한 직업과 정규 엘리트 교육 밖에서 출발한 사람이 깊은 신앙 경험과 힘 있는 언어로 세계적인 작품을 남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동상 받침의 장면과 손에 든 책을 보며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야기와 공동체의 기억으로 바뀌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을 든 손과 설교하는 듯한 자세, 받침대의 부조는 버니언을 작가이면서 신앙의 증언자로 기억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평범한 장인과 비국교도 설교자의 삶이 공공 동상으로 기념되는 모습은 사회적 지위보다 말과 글, 양심의 실천이 공동체의 기억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버니언 미팅 교회와 박물관

Bunyan Meeting Free Church & Museum

버니언이 목회했던 비국교도 공동체의 전통을 잇는 교회와 작은 박물관입니다. 교회 문에는 『천로역정』 장면이 새겨져 있고, 전시는 그의 생애·설교·투옥·저술을 소개합니다. 화려한 성당과 달리 신앙 양심과 말씀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장한 공간을 보며, 교회가 건물보다 사람들의 약속과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예배 공동체가 이어지는 교회라는 점에서 이곳은 과거를 보관하는 박물관만이 아닙니다. 문에 새겨진 순례 장면과 전시된 책·기록·생활 자료를 함께 보면 투옥과 설교, 글쓰기와 공동체가 어떻게 『천로역정』의 배경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포드·엘스토우 · 계속

존 버니언과 마음의 순례 | Bedford & Elstow, England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옛 베드포드 감옥 터

Site associated with Bedford County Gaol · Silver Street area

버니언은 허가받지 않은 설교를 계속했다는 이유로 1660 년부터 오랜 기간 수감되었습니다. 감옥 건물은 남아 있지 않고 정확한 흔적도 제한적이지만, 이 일대는 양심과 종교 자유의 대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천로역정』이 감옥에서 구상·집필되었다는 전승을 기억하되, 한 작품의 작성 시점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단정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건물이 사라진 장소에서는 남아 있는 표지와 문서, 당시의 법과 도시 지도를 서로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버니언의 수감은 종교적 통일을 요구하던 국가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한 사건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감옥 터는 자유가 제도와 일상의 선택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역사를 전합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세인트 존 교회와 옛 사제관

St John's Church & former rectory, Bedford

세인트 존 교회와 옛 사제관은 지역 전통에서 『천로역정』의 '해석자의 집'과 연결해 설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소설 속 장소를 실제 건물과 정확히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건물의 오래된 구조와 버니언이 알았을 법한 도시 풍경을 살피며, 작가가 여러 경험과 성경 이미지를 섞어 새로운 문학 공간을 만든 과정을 상상하게 합니다. 지역 전승은 이곳을 작품 속 '해석자의 집'과 연결하지만, 정확한 모델이라고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건물의 방과 문, 교회 주변의 거리 풍경을 보면서 버니언이 고향의 여러 장소와 성경적 이미지를 결합해 독자에게 배움과 안내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포드·엘스토우 · 계속

존 버니언과 마음의 순례 | Bedford & Elstow, England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엘스토우 수도원 교회

Elstow Abbey Church · Church of St Mary and St Helena

버니언이 어린 시절 세례받고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엘스토우의 역사 교회입니다.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해 길을 시작하는 장면과 이 교회 주변을 연결하는 지역 전승도 있습니다. 오래된 예배 공간의 문·종·묘지를 보며 버니언의 상상력이 성경 이야기와 고향 풍경에서 어떤 재료를 얻었을지 생각하게 합니다. 현재 교회는 옛 수도원 시설의 일부가 남아 이어진 공간이며, 떨어져 서 있는 종탑과 오래된 묘지가 마을의 긴 신앙 역사를 보여 줍니다. 문과 길, 종소리와 교회 뜰은 『천로역정』에서 부름을 듣고 익숙한 세계를 떠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는 역사 사실이라기보다 고향 풍경과 문학을 잇는 지역적 해석입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엘스토우 마을광장과 무트 홀

Elstow Village Green & Moot Hall

중세부터 장터와 모임이 열렸던 마을광장과 무트 홀은 『천로역정』의 '허영의 시장'에 영감을 준 장소로 자주 소개됩니다. 시장은 필요한 것을 사고 사람을 만나는 곳이지만, 작품에서는 명예·쾌락·권력까지 거래되는 유혹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실제 장터의 기능과 소설의 과장된 상징을 비교하며 소비가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이끄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목조 골조가 드러나는 무트 홀은 장터·재판·마을 업무에 사용되었던 생활 중심 건물로, 오늘날에는 지역사를 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장의 소리와 거래, 사람의 욕망을 상상하면 소설 속 '허영의 시장'이 일상의 소비를 과장해 인간의 선택과 유혹을 보여 주는 우화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베드포드·엘스토우 · 계속

존 버니언과 마음의 순례 | Bedford & Elstow, England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버니언 출생지 기념 지점

Bunyan Birthplace Memorial · Harrowden

버니언이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해로든의 집은 남아 있지 않지만, 기념 표지와 지역 기억이 그의 출발점을 알려 줍니다. 세계적으로 읽히는 작가가 작은 마을의 땜장이 가정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은 재능이 특정한 배경에만 속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사라진 집을 상상하며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는 데 건물, 기록, 이야기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집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곳의 기억은 기념 표지, 지명, 문서와 주변 풍경을 통해 이어집니다. 작은 농촌·수공업 공동체에서 출발한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 이야기는 역사적 인물의 배경을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당시의 평범한 노동과 생활 조건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엘스토우 브룩과 '절망의 늪' 연상 풍경

Elstow Brook · Squitch Fen association

엘스토우의 습한 저지대와 개울은 오래전부터 『천로역정』의 '절망의 늪'을 떠올리게 하는 지역 풍경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설은 실제 여행 안내도가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죄책감·낙심을 공간으로 바꾼 우화입니다. 특정 웅덩이를 정확한 원형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익숙한 자연이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문학적 상징이 되는 과정을 생각하게 합니다. 습한 땅과 개울, 진흙길은 성경의 '수렁' 이미지와 버니언의 고향 경험이 만나는 자연스러운 재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늪은 지리적 한 지점보다 죄책감과 낙심,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마음을 공간으로 표현한 상징이며, 실제 풍경과 문학적 의미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런던→파리

도시를 잇는 철도 | St Pancras International · Eurostar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세인트 판크라스 국제역·유로스타

St Pancras International · Eurostar

1868 년에 완성된 거대한 철제 열차 지붕과 고딕 양식 호텔이 결합된 런던의 국제역입니다. 2007 년부터 유로스타가 이곳에서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고 있으며, 역사 건축을 철거하지 않고 현대 교통시설로 다시 사용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출국 심사와 보안 절차가 있으므로 여권·표·수하물을 스스로 확인하고 정해진 모임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윌리엄 발로의 거대한 철제 승강장 지붕과 조지 길버트 스콧의 붉은 벽돌 고딕 호텔은 산업 기술과 역사주의 장식이 나란히 선 모습을 보여 줍니다. 복원된 역에서 국제 고속철도가 출발하는 장면은 오래된 건축을 보존하면서도 국경 심사와 현대 교통 기능을 새롭게 담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알리그르 시장·벼룩시장

Marché d'Aligre · Rue d'Aligre

길거리 식품시장, 보부오 실내시장, 중고품 노점이 이어지는 생활형 시장입니다. 관광 명소 이전에 동네 주민이 장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곳이므로 사진을 찍기 전에는 상인과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과일·치즈·향신료·헌책의 색과 냄새, 프랑스어 가격표를 살펴보며 시장이 도시의 경제와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의 보부오 시장과 거리의 식품 노점, 중고품 장터가 이어져 새 물건과 재사용 물건, 지역 식재료와 이주민 문화가 한 동네 경제 안에서 만납니다. 상품의 포장과 진열, 가격표와 흥정 방식은 같은 물건의 가치가 품질뿐 아니라 이야기와 관계,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바스티유 광장

Place de la Bastille

1789 년 프랑스혁명 때 습격당한 바스티유 감옥은 철거되어 지금은 건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광장 중앙의 7 월 기둥은 1789 년이 아니라 1830 년 7 월혁명을 기념합니다. 서로 다른 혁명의 기억이 한 장소에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감옥의 윤곽과 지하에 남은 흔적을 통해 도시가 사라진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광장과 주변 도로에는 사라진 감옥의 위치를 기억하게 하는 표지와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일부 유구는 지하 교통시설에서도 확인됩니다. 1789 년의 감옥 습격과 1830 년을 기념하는 7 월 기둥, 현대의 오페라 극장이 한곳에 모여 있어 혁명·기념·일상문화가 시대별로 겹쳐진 장소입니다.

파리·오베르쉬르우아즈 · 계속

시장·혁명·문학·반 고흐 | Paris & Auvers-sur-Oise, France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빅토르 위고의 집

Maison de Victor Hugo · Place des Vosges

빅토르 위고가 1832 년부터 1848 년까지 가족과 살았던 보주 광장의 집입니다. 『레 미제라블』과 『노트르담 드 파리』의 작가는 문학뿐 아니라 가난·사형제·정치적 자유 같은 사회문제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의 장식과 책상, 초상화를 보며 작가의 집이 창작 공간이자 친구와 생각이 모이는 공적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주 광장을 바라보는 방들은 가족생활, 손님을 맞는 살롱, 글을 쓰는 작업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작가의 사적 삶과 공적 활동을 함께 보여 줍니다. 위고가 망명과 정치 참여를 겪은 뒤에도 사회적 약자와 자유의 문제를 작품에 담았다는 사실은 집 안의 화려한 장식과 책상을 더 넓은 시대 배경 속에서 보게 합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오베르쉬르우아즈와 라부 여인숙

Auvers-sur-Oise · Auberge Ravoux

반 고흐는 1890 년 5 월 오베르쉬르우아즈에 도착해 라부 여인숙의 작은 방에서 마지막 약 70 일을 보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마을과 들판, 사람을 빠르게 그리며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비극적인 천재'라는 한 문장으로 삶을 단순화하지 말고, 매일 일하고 편지를 쓰며 관계와 도움을 필요로 했던 한 사람으로 바라보세요. 라부 여인숙의 작은 다락방과 식당, 바로 앞의 거리와 가까운 들판은 반 고흐의 마지막 시기에 생활과 작업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그는 짧은 체류 동안 반복적으로 걸으며 마을 건물과 밭, 사람을 그렸고, 편지를 통해 작업 계획과 건강, 가족에 대한 생각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오베르 시청과 반 고흐의 그림

Hôtel de Ville d'Auvers-sur-Oise

라부 여인숙 맞은편의 작은 시청은 반 고흐가 1890 년 7 월 14 일 축제 장식과 함께 그린 장소입니다. 실제 건물과 그림을 비교하면 화가가 정확한 복사보다 색의 대비, 하늘의 움직임, 깃발의 리듬을 선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보아도 관찰자의 감정과 구성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림 속 시청은 실제 건물의 비례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깃발과 창, 지붕선과 하늘의 리듬을 강조해 축제의 긴장과 움직임을 만들어 냅니다. 현재의 건물과 작품을 나란히 보면 화가의 관찰이 사실 기록과 감정 표현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점이 선명해집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오베르 교회

Église Notre-Dame-de-l'Assomption d'Auvers-sur-Oise

언덕 위의 중세 교회는 반 고흐의 유명한 작품 「오베르의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는 뒤쪽에서 본 건물을 휘어진 윤곽과 강한 파랑·보라로 표현해 실제 건축보다 흔들리는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사진처럼 '맞게' 그리지 않아도 장소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며, 예배 공간에서는 조용히 행동합니다. 반 고흐의 그림에서는 교회가 안정된 수직선보다 휘어진 윤곽과 갈라지는 길, 깊은 파랑으로 표현되어 실제 건축보다 불안하고 움직이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현장의 지붕선과 창, 길의 방향을 작품과 비교하면 회화가 장소의 모양뿐 아니라 화가가 느낀 시간과 정서를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빈센트와 테오의 묘

Tombs of Vincent and Theo van Gogh

오베르 공동묘지에는 빈센트 반 고흐와 평생 그를 지원한 동생 테오의 묘가 나란히 있습니다. 두 묘를 덮은 담쟁이는 형제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 보이지만, 이곳은 무엇보다 가족과 방문객이 조용히 추모하는 묘지입니다. 작품의 명성보다 한 사람을 지지한 편지와 돌봄,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묘비는 크기와 장식이 매우 소박하고 나란히 놓여 있어, 세계적인 명성보다 형제의 관계와 한 인간의 죽음을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테오가 편지와 생활비, 전시와 판매를 통해 빈센트의 작업을 오랫동안 지지했다는 사실은 예술가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 돌봄과 협력 위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가셰 박사의 집

Maison du Docteur Gachet

의사이자 미술 애호가였던 폴 가셰가 살던 집으로, 반 고흐는 그와 교류하며 초상과 정원 풍경을 그렸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두 사람 모두 예술과 개인적 어려움을 나눈 복잡한 친구였습니다. 정원과 작업 공간을 보며 치료가 약뿐 아니라 대화·환경·관계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셰는 의사이면서 미술 수집가와 아마추어 예술가로 활동해 화가들과 의학·예술의 언어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집과 정원, 반 고흐가 남긴 초상과 풍경은 치료 관계가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건강을 돌보는 일에 약과 진단뿐 아니라 대화·환경·신뢰가 중요하다는 맥락을 더합니다.

파리·오베르쉬르우아즈 · 계속

시장·혁명·문학·반 고흐 | Paris & Auvers-sur-Oise, France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도비니의 정원

Jardin de Daubigny

반 고흐가 존경한 선배 풍경화가 샤를 프랑수아 도비니의 정원을 그린 장소입니다. 길쭉한 '더블 스퀘어' 화면에 정원, 집, 고양이와 인물을 펼쳐 놓아 한눈에 넓은 공간을 걷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 정원과 작품을 비교하며 화가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생략했는지, 화면 비율이 시선의 이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비니는 야외에서 직접 풍경을 관찰한 선배 화가로, 반 고흐에게 자연을 대하는 중요한 본보기였습니다. 반 고흐가 사용한 길쭉한 화면은 정원과 집, 나무와 인물을 좌우로 펼쳐 관람자의 시선을 산책시키며, 실제 정원에서 무엇을 남기고 생략했는지를 비교하기 좋게 합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오베르의 밀밭과 마지막 풍경들

Wheat fields around Auvers-sur-Oise

반 고흐는 오베르 주변의 밀밭과 구름, 길과 까마귀를 여러 번 그렸습니다. 특정 밭을 그의 마지막 장소나 총상을 입은 정확한 지점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넓은 풍경을 존중하며 그의 정신적 고통을 낭만화하지 말고, 끝까지 그림을 그린 노동과 주변 사람의 도움, 오늘날 마음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반 고흐는 같은 들판도 하늘의 비율, 길의 방향, 작물과 구름의 붓질을 달리해 여러 분위기로 표현했습니다. 「까마귀가 있는 밀밭」을 반드시 마지막 작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비극적 결말 하나보다 그가 마지막까지 이어 간 관찰과 작업의 연속성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파리

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 | Paris, France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오르세 미술관

Musée d'Orsay

1900 년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기차역을 개조해 1986 년 문을 연 미술관입니다. 주로 1848~1914 년의 회화·조각·사진·장식예술을 다루며 인상주의 작품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큰 시계와 높은 역 공간을 보며 이동의 장소가 예술을 보는 장소로 바뀐 과정을 느끼고, 한 작품을 가까이·멀리에서 번갈아 보며 붓질과 전체 인상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빅토르 랄루가 설계한 역은 고전적인 석조 외관 안에 철과 유리의 근대적 구조를 숨겨, 당시 새 교통시설을 역사적인 도시 경관에 맞추려 했습니다. 긴 중앙 홀과 거대한 시계, 옛 플랫폼 방향의 동선은 작품을 보는 동안에도 여행과 시간의 감각을 남기며, 루브르 이후와 현대미술 이전의 시대를 잇는 미술관의 역할과 잘 어울립니다.

파리

빛·신앙·시민의 기억 | Île de la Cité & Left Bank, Paris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노트르담 대성당

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

12 세기부터 건설된 프랑스 고딕 건축의 대표 성당으로, 2019 년 화재 뒤 대규모 복원을 거쳐 2024 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첨두아치, 플라잉 버트레스, 장미창은 돌벽을 높고 밝게 만들기 위한 구조적 해답입니다. 화재와 복구를 통해 문화유산은 한 번 완성되어 멈춘 물건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돌보고 기술을 이어 가는 책임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원 과정에서는 중세 방식과 현대 과학을 함께 사용해 목조 지붕과 첨탑, 석재와 스테인드글라스를 조사하고 되살렸습니다. 외부의 플라잉 버트레스가 높은 벽을 바깥에서 지지하고, 내부의 첨두아치와 장미창이 빛을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은 고딕 건축이 구조와 상징을 하나로 만든 방식을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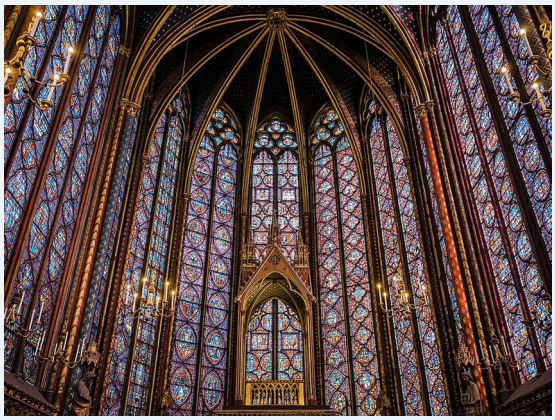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생트샤펠

Sainte-Chapelle

프랑스 왕 루이 9 세가 성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왕실 예배당으로, 1248 년에 봉헌되었습니다. 상층 예배당은 벽보다 스테인드글라스가 더 넓게 느껴질 만큼 색유리 창이 공간을 감쌉니다. 성경 이야기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빛과 이미지로 전해졌다는 점을 생각하며, 창 하나를 골라 인물·색·장면을 천천히 찾아보세요. 아래 예배당은 궁정의 일상 예배를 담당하고, 높은 상층 예배당은 왕실의 성유물을 위한 거대한 보석함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가느다란 기둥 사이를 채운 색유리와 빛이 바닥까지 번지는 모습은 돌벽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며, 신앙과 왕권이 시각적 장관을 통해 표현된 방식을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뤽상부르 공원

Jardin du Luxembourg

17 세기 초 마리 드 메디시스를 위해 조성된 궁전 정원으로, 오늘날에는 프랑스 상원이 있는 뤽상부르 궁과 시민 공원이 함께 자리합니다. 대칭적인 화단과 분수, 나무길, 어린이 놀이와 의자가 어우러져 엄격한 계획과 일상적 자유가 공존합니다. 정원을 '보기 위한 풍경'이면서 '사용하는 공공 공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식 대칭 화단과 넓은 수면, 나무 그늘의 산책로와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의자는 엄격한 계획과 개인의 선택을 함께 허용합니다. 모형 배를 띄우는 어린이, 책을 읽는 시민, 운동하는 사람과 상원 건물을 한눈에 보면 왕실 정원이 현대의 생활 공원으로 전환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팡테옹

Panthéon

원래 성 주느비에브에게 봉헌된 교회로 시작했지만 프랑스혁명 뒤 국가가 기리는 인물을 안장하는 기념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푸코의 진자는 지구의 자전을 눈앞에서 보여 주며 종교·정치·과학의 역사가 한 건물에 겹칩니다. 누구를 '위대한 사람'으로 선택하고 기억하는지가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크 제르맹 수플로가 설계한 돔과 고전주의 기둥은 처음에는 성당의 장엄함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혁명 이후에는 국가적 위인을 기리는 세속 기념 공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돔 아래의 푸코 진자, 벽화와 지하 묘실은 과학적 증명·종교적 기억·공화국의 영웅 서사가 한 건물 안에서 서로 다른 층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베르사유 궁전

Château de Versailles

루이 14 세가 왕권을 집중시키며 1682 년 궁정과 정부의 중심으로 삼은 거대한 궁전입니다. 거울의 방과 정원 축은 왕을 중심으로 질서가 뻗어 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를 유지한 수많은 노동과 막대한 비용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1919 년 제 1 차 세계대전 뒤 조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점에서 왕궁이 국제정치의 무대로 바뀐 역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앙드레 르 노트르의 정원과 분수, 거울의 방의 창과 반사면은 궁전 중심에서 시선과 동선이 멀리 퍼져 나가도록 만들어 왕의 통제력을 공간적으로 연출했습니다. 화려한 방 뒤에는 궁정을 운영한 하인·장인·정원사와 막대한 물자 공급 체계가 있었으며, 권력의 이미지가 수많은 노동 위에 세워졌다는 점도 함께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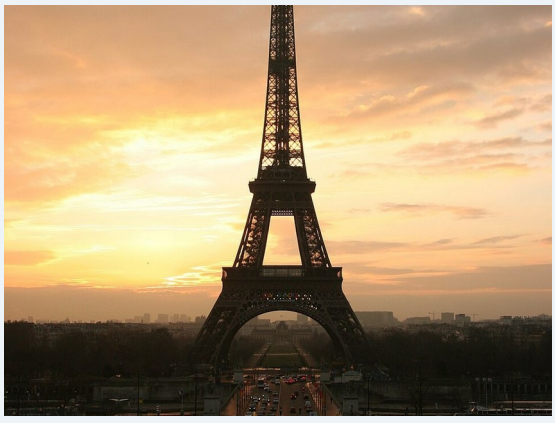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트로카데로 광장

Place du Trocadéro

샤요 궁 앞의 넓은 광장과 테라스로, 센강 건너 에펠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대표 전망지입니다. 전망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지만 건물, 계단, 분수, 강, 탑을 하나의 축에 맞춘 도시 연출의 결과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거리를 지키고, 같은 탑이 거리와 프레임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현재의 샤요 궁과 넓은 테라스는 20 세기 박람회 도시계획의 결과이며, 센강과 샹드마르스까지 이어지는 축이 에펠탑을 하나의 거대한 무대 중심에 놓습니다. 이 일대가 인권의 언어와도 연결되어 온 역사 때문에, 전망대는 관광사진의 자리인 동시에 근대 세계가 기술과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전시했는지를 보여 주는 장소입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에펠탑

Tour Eiffel

1889 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귀스타브 에펠의 회사가 세운 철제 탑입니다. 처음에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통신과 과학 실험에 사용되며 파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돌로 무게를 숨기지 않고 철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설계에서 산업시대의 자신감과 새로운 미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촘촘한 철제 격자는 바람을 통과시키면서 하중을 네 개의 다리로 분산하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곡선은 공학적 계산이 만든 형태입니다. 다리 안쪽을 따라 오르는 엘리베이터와 반복되는 리벳,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 간격을 보면 장식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실제로는 힘의 흐름을 드러낸 설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루브르 박물관

Musée du Louvre

중세 요새에서 왕궁으로, 다시 1793 년 공공 박물관으로 바뀐 거대한 문화 공간입니다. 고대 문명부터 19 세기까지의 작품이 방대하므로 '모나리자만 보기'보다 시대가 다른 작품 세 점을 골라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리 피라미드는 1989 년 완성된 현대적 입구로, 오래된 궁전에 새 기능을 넣는 방식에 대한 논쟁과 조화를 함께 보여 줍니다. 지하의 중세 성벽과 해자 흔적, 왕궁의 장식된 방, 현대 유리 피라미드를 차례로 보면 한 장소가 방어·거주·국가 전시·대중 관람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받아들여 온 과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작지와 이동 경로를 함께 살피면 박물관 자체의 역사도 수집과 권력, 보존과 공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생제르맹 록세루아 교회

Église Saint-Germain-l'Auxerrois

루브르 맞은편에 있는 오래된 교회로, 왕궁이 가까웠던 시절 프랑스 왕실의 본당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증축으로 로마네스크·고딕·르네상스 요소가 섞여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시간이 겹쳐 보입니다. 1572 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과 관련된 기억도 전해지므로, 아름다운 건축과 폭력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관과 종탑, 장미창과 내부 장식은 여러 세기의 수리와 증축을 거쳐 서로 다른 양식이 한 건물에 남은 결과입니다. 루브르 왕궁의 본당이었던 영광과 종교 폭력에 얽힌 어두운 기억이 함께 존재하므로, 아름다움만 떼어 보지 않고 건물이 지나온 정치·신앙의 갈등까지 읽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콩코드 광장

Place de la Concorde

루이 15 세를 기리는 왕실 광장으로 시작했지만 프랑스혁명 때 단두대가 설치되어 루이 16 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등이 처형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중앙의 룩소르 오벨리스크는 1836 년에 세워져 훨씬 더 오래된 이집트 문명을 파리의 도시 축에 놓았습니다. '화합'이라는 현재 이름 아래 왕정·혁명·제국·관광의 기억이 겹쳐 있습니다. 룩소르에서 온 고대 오벨리스크와 19 세기 분수, 튈르리 정원과 샹젤리제를 잇는 긴 축은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상징을 한 중심점에 모읍니다. 넓고 정돈된 현재의 풍경 아래에 왕실 기념, 혁명기의 처형, 제국과 현대 국가 행사가 겹쳐 있어 '화합'이라는 이름이 복잡한 기억을 덮기보다 함께 담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파리

예술가의 언덕과 근대 도시 | Paris, France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몽마르트르 언덕

Montmartre

파리 북쪽의 언덕 마을로,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 비교적 싼 작업실과 활기찬 유흥문화 때문에 많은 예술가가 모였습니다. 사크레쾨르 대성당, 테르트르 광장, 가파른 골목은 오늘날 관광지이지만 주민의 생활공간이기도 합니다. '예술가의 낭만' 뒤에 가난과 노동, 도시 외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몽마르트르는 파리에 편입되기 전부터 포도밭과 채석장, 노동자 마을의 성격을 지녔고, 싼 임대료와 활발한 공연문화가 예술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관광객이 붐비는 테르트르 광장과 조용한 주거 골목, 계단과 작은 포도밭을 함께 보면 '예술가의 언덕'이라는 이미지 뒤에 주민의 노동과 정치적 갈등, 생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오스만 대로

Boulevard Haussmann

19 세기 나폴레옹 3 세와 조르주 외젠 오스만의 도시 개조로 만들어진 넓은 대로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규칙적인 석조 아파트 외관, 큰 교차로, 상하수도와 공원은 이동과 위생을 개선했지만 많은 주민의 이주와 철거도 낳았습니다. 반듯한 도시가 누구에게 편리하고 누구에게 비용을 요구했는지 함께 물음을 던집니다. 건물 높이와 처마선, 층별 발코니를 맞춘 규칙적인 외관은 거리 전체를 하나의 건축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뒤의 집과 상점은 서로 다른 삶을 담고 있습니다. 넓은 도로 아래에는 상하수도와 가스관 같은 기반시설이 놓였고, 동시에 대규모 철거와 임대료 상승이 기존 주민을 밀어내 도시 개선의 혜택과 비용이 고르게 나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파리 · 계속

예술가의 언덕과 근대 도시 | Paris, France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개선문

Arc de Triomphe

나폴레옹이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806 년 건설을 명령했고 1836 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거대한 부조와 전투명 아래에는 제 1 차 세계대전 무명용사의 묘와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 승리의 영광과 이름 없는 희생이 함께 놓입니다. 복잡한 원형교차로에서는 지하 통로를 이용하고 도로를 직접 건너지 않습니다. 아치의 벽면에는 전투와 장군의 이름, 거대한 부조가 새겨져 국가의 승리를 시각적으로 확대합니다. 그 아래 무명용사의 묘와 매일 이어지는 추모의 불꽃은 이름 없이 희생된 사람을 기억하게 하며, 열두 갈래 대로가 모이는 별 모양 도시 구조 속에서 영광과 애도가 동시에 중심을 차지합니다.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샹젤리제 거리

Avenue des Champs-Élysées

콩코드 광장에서 개선문까지 이어지는 파리의 대표 대로로, 왕실 정원의 연장선에서 국가 행진과 상업 거리로 발전했습니다. 넓은 보도와 가로수, 극장과 상점은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지만, 세계적인 브랜드와 높은 임대료가 거리의 성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유명한 거리'가 역사·국가행사·소비문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리는 튈르리 정원에서 콩코드 광장, 개선문과 라데팡스 방향으로 이어지는 역사축의 한 부분으로, 아래쪽의 공원 같은 구간과 위쪽의 상업 구간이 다른 분위기를 만듭니다. 국가 기념행진과 시민 축하, 세계적 상점과 관광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가로수·가로등·건물선이 개선문을 향한 강한 원근감을 형성합니다.

파리 · 계속

예술가의 언덕과 근대 도시 | Paris, France

사진 출처·라이선스: 부록 참조

쁘띠 팔레

Petit Palais · Musée des Beaux-Arts de la Ville de Paris

1900 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건물로, 오늘날 파리시립미술관이 자리합니다. 큰 아치형 입구, 금빛 장식, 돔과 안뜰 정원은 당시 박람회가 예술과 기술, 도시의 자신감을 어떻게 전시했는지 보여 줍니다. 이름은 '작은 궁전'이지만 내부는 넓고, 맞은편 그랑 팔레와 함께 박람회 도시계획의 한 쌍을 이룹니다. 건축가 샤를 지로는 화려한 석조 정면 뒤에 철과 유리 지붕, 곡선형 전시실과 안뜰 정원을 배치해 전시와 휴식을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조각이 가득한 입구와 금속문, 모자이크와 돔의 장식은 벨 에포크 시대의 자신감을 드러내며, 맞은편 그랑 팔레와 함께 만국박람회가 남긴 도시 공간을 완성합니다.

사실 확인과 자료 사용 안내

본문은 공식 기관과 문화유산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운영시간·입장 방식·보안·예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직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버니언과 반 고흐 관련 지점은 확인된 역사 사실, 지역 전승, 문학적 연상을 구분해 표현했으며, 특정 장소를 작품의 유일한 원형이나 마지막 사건의 정확한 지점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헬싱키

핀란디아 홀 공식 역사 자료 · 헬싱키시립미술관(HAM) · 헬싱키시 도시 안내 자료

런던 왕실·공원·미술

The Royal Parks · Royal Collection Trust · National Gallery · Tower Bridge 공식 안내

런던 전쟁·정치·교회

Imperial War Museums(IWM) · UK Ministry of Defence · UK Parliament · Westminster Abbey · St Paul's Cathedral

런던 박물관·대학

British Museum · Victoria and Albert Museum · Imperial College London · Natural History Museum

케임브리지·버니언

University of Cambridge · Trinity College · Historic England · Bunyan Meeting · Bedford Borough 지역사 자료 · Elstow Moot Hall 자료

파리 미술·문화유산

Paris Musées · Musée d'Orsay · Musée du Louvre · Petit Palais · Maison de Victor Hugo

파리 종교·기념 건축

Notre-Dame de Paris ·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Sainte-Chapelle·Panthéon) · Château de Versailles · Eiffel Tower

오베르쉬르우아즈

Van Gogh Museum · 오베르쉬르우아즈 지역 문화유산 자료 · 반 고흐의 편지와 작품 자료

사진은 통일된 지면 비율에 맞추어 가장자리를 자르거나 크기를 조정했으며, 색상 합성이나 내용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 파일의 촬영자·출처·공개 라이선스는 다음 사진 크레딧 표에 정리했습니다.

사진 크레딧

촬영자·출처와 공개 라이선스 정보

사용 파일	촬영자·출처	라이선스
finlandia.jpg	Thermos / Wikimedia Commons	CC BY 2.5
winter_war_memorial_cc.png	Forsnad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senate_square.jpg	Jonik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uspenski.jpg	InvictaHOG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minesweeper_memorial.jpg	JIP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buckingham_victoria.jpg	Julian Herzog / Wikimedia Commons	CC BY 4.0
st_james_park.jpg	Malc McDonald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trafalgar_gallery.jpg	David Iliff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wellington_arch.jpg	Carlos Delgado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hyde_park.jpg	Julian Herzog / Wikimedia Commons	CC BY 4.0
john_stuart_mill.jpg	Ethan Doyle White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tower_bridge.jpg	Colin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imperial_war_museum.jpg	Alkivar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korean_war_memorial_london.jpg	POA(PHOT) Owen Cooban / UK Ministry of Defence	Open Government Licence v2.0
churchill_war_rooms.jpg	Jenny Poole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사진 크레딧 · 계속

촬영자·출처와 공개 라이선스 정보

사용 파일	촬영자·출처	라이선스
primrose_hill.jpg	Duncan / Nottingham / Wikimedia Commons	CC BY 2.0
sherlock_holmes_museum.jpg	Oxyman / Wikimedia Commons	CC BY 2.5 / CC BY-SA 3.0
regents_park.jpg	Editor5807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cambridge_university.jpg	Christian Richardt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newton_apple_tree.jpg	Hans Wolff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st_pauls_cathedral.jpg	Alexandre Buisse (Nattfodd) / Wikimedia Commons	CC BY-SA 2.5/3.0
westminster_bigben.jpg	Domob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westminster_abbey.jpg	Arpingstone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british_museum.jpg	David Iliff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victoria_albert_museum.jpg	David Iliff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imperial_college.jpg	David Richfield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natural_history_museum.jpg	Vinceesq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bunyan_statue.jpg	Danny Robinson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bunyan_meeting.jpg	Simon Speed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bedford_gaol_plaque.jpg	RichTea / Geograph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사진 크레딧 · 계속

촬영자·출처와 공개 라이선스 정보

사용 파일	촬영자·출처	라이선스
st_johns_bedford.jpg	Alex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elstow_abbey.jpg	Poliphilo / Wikimedia Commons	CC0
moot_hall.jpg	Shritwod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bunyan_birthplace.jpg	Dennis Simpson / Geograph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slough_of_despond.jpg	Frederick Barnard·J. D. Linton·W. Small 등, Dalziel Brothers 판화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st_pancras.jpg	Ad Meskens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aligre_market.jpg	Jesús Gorriti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bastille.jpg	Britchi Mirela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victor_hugo_house.jpg	Staroad.fr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auvers_auberge_ravoux.jpg	Chabe01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auvers_town_hall.jpg	Romain Pajda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auvers_church.jpg	P.poschadel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France
auvers_van_gogh_graves.jpg	Ocroquette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GFDL
auvers_gachet_house.jpg	P.poschadel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France
daubigny_garden.jpg	World3000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사진 크레딧 · 계속

촬영자·출처와 공개 라이선스 정보

사용 파일	촬영자·출처	라이선스
auvers_wheat_fields.jpg	Helena Bourdelle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orsay.jpg	Pierre Blaché / Wikimedia Commons	라이선스는 원본 파일 페이지 참조
notre_dame.jpg	Wikimedia Commons contributor	라이선스는 원본 파일 페이지 참조
sainte_chapelle.jpg	Oldmanisold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luxembourg_gardens.jpg	Guilhem Vellut / Wikimedia Commons	CC BY 2.0
pantheon.jpg	Wikimedia Commons contributor	라이선스는 원본 파일 페이지 참조
versailles.jpg	Myrabella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trocadero_eiffel.jpg	Wikimedia Commons contributor	라이선스는 원본 파일 페이지 참조
louvre.jpg	Guilhem Vellut / Wikimedia Commons	CC BY 2.0
saint_germain_auxerrois.jpg	Mbzt / Wikimedia Commons	공개 라이선스(원본 파일 페이지 참조)
concorde.jpg	David Broad / Wikimedia Commons	CC BY 3.0
montmartre.jpg	Wikimedia Commons contributor	라이선스는 원본 파일 페이지 참조
haussmann.jpg	Cheng-en Cheng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arc_champs.jpg	Pierre Blaché / Wikimedia Commons	CC0
petit_palais.jpg	Albert Bergonzo / Wikimedia Commons	CC0